

제11회 목포시의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5(1952)년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 17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이재홍, 김남진, 임일남, 문택호,

김팔용,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 : 4명

진복춘, 김경현, 이문길, 김채용 의원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안경호 부시장, 김용준 교육청 서무과장, 신현중 교육감,
조희대 서무계장

4.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10회 임시회의 회의록
- 2) 제10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3) 공동하치장 부근 노점철거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4) 동목포역 설치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5) 목포일보 휴간 조사위원회 경과보고
- 6) 시영 용당도선장 진상조사 위원회 경과보고
- 7) 목포시 중앙도매시장 허가취득 경위보고
- 8) 전 만호동장 김성곤 사건처리 전말보고
- 9) 인분차 시간제한 교섭위원회 경과보고

◆ 부의안건

- 1)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일시차입의 건
- 2)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제정의 건
- 3) 목포시 호별세 부가금조례 제정의 건
- 4) 목포시 특별부가금조례 제정의 건
- 5) 목포시 교육위원회 수입원과 지출원 조례 제정의 건
- 6) 목포시 교육위원회 신원보증조례 제정의 건
- 7)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 제정의 건
- 8)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개정
정의 건
- 9) 단기4285(1952)년도 호별세부과금 및 특별부과금 세률결정의 건
- 10)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학교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 11) 단기4285(1952)년도 식량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 개정의 건
- 12) 단기4285(1952)년도 제2기분 호별세 부과세률 인하부과의 건

5. 개회식

- 1) 개 회 사
- 2) 국민의례
- 3) 의장인사
- 4) 폐 식

6.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1시 30분)

◇ 의장 유 정 두

- 안건 심의하기 전에 청원서 취급에 있어서는 엄연히 자치법 제40조 및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 유달 초등학교 사친회에서 제출된 청원서는 법규에 위반됨으로 정식 각하 하겠음

◇ 서기 박 찬 대

- 제10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낭독

◇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하겠습니다

◇ 서기 박 찬 대

- 제10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낭독

◇ 이 복 주 의원

- 공동 하양장 부근 노점철거 추진위원회의 경과 보고가 있었음 (보고내용)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철거 단행할 것을 재강조

◇ 이 재 흥 의원

- 보고사항이 많으므로 시간 절약상 보고가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자 동의

◇ 김 영 완 의원

- 일단 의회에서 결의된 이상 어디까지나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에서 출동해야 될 것이다. (의견)

◇ 이 소 규 의원

- 노점 철거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회의 태도가 서야 방법이 설 것으로 생각한다.

◇ 의장 유 정 두

-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시장과 상의하여 시장, 의장, 서장, 사령관, 해헌대장, 해사국장이 연석하여 상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 김 팔 용 의원

- 동목포역 설치추진 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었음 (보고내용)

이로면장, 의장, 지서주임까지 만나서 말을 했더니 환영하였고, 근로동원에 있어서도 약 3,000명 정도 출역시키겠다는 확답이 있었다. 제2차로 형무소에 가서 경추돌 2,200개를 한덩어리에 약 800원씩의 염가로 승낙받았고, 토지 경작인에게는 보상금을 주워 원만히 포기하도록 하여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반 면편입 문제가 생기자 장소가 적지가 아니니 타처로 옮기자는 설이 대두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허가취소 연기에 수반한 착공 관계상 우려되는 일이니 차점 유의하시여 단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시에서 적극적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장께서 행정부에 넘겨 달라는 요청도 있다.

◇ 의장 유 정 두

- 이 공사를 추진하려면 현금이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또한 부역, 현품이 상당하니 행정부에서 적의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다하니 이 문제는 시에다 넘겨주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자

◇ 이 소 규 의원

- 행정부에 넘겨준다는 데는 찬성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애로점을 현금 문제인데 주정공장에 물을 주기로 계약하고 수도관 보수공사비 2천만원주겠다고 지배인이 확인했으니 행정당국에 요청할 것은 이 돈을 동목포역 설치비로 충당하고 착공토록 하자

◇ 김 삼 성 의원

- 이로면의 편입으로 동목포역 착공이 지연된다는 보고와 거반 면 편입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

◇ 의장 유 정 두

- 면 편입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세의 파란곡절이 있었으며, 특히 자기네들의 복리관계에 있어서 시민으로 있는 것이 면민으로 있는 것보다 이로운가 하는 점에서 생각 중에 있는 것 같다.

- 동목포역 관계는 시장이 오후 회의에 참석하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하자

◇ 이 복 주 의원

- 목포일보 휴간 조사위원회 경과보고가 있었음.

(보고내용)

운영면에 있어서는 금전인데 풍문에 의하면 모 인사들이 목포일보를 살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경제면에 애로가 있으니 우리는 가능한 한 돈을 내가지고 목포일보를 살릴 것이며, 복간 추진위원회가 생겼으니 우리 조사위원회는 오늘로서 해산하자(동의)

◇ 의장 유 정 두

- 해산 하자는데 이의가 없는가 가부를 묻겠음
전원 찬성 가결되다.

◇ 서기 박 찬 대

- 용당 도선장 진상 조사위원회 경과보고가 있었음 (회의록 별첨)

◇ 이 복 주 의원

- 명남철 의원과 같이 현장을 실지 답사하여 조사했던 바 행정부에 한없이 공격할만한 사실을 목격했다.

그는 승선표와 물표를 끊지않고 도중에서 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시 오후 종료시에 일괄해서 표를 끊어 가지고 시청에 지불한다고 하나 혹시 손님 많아서 많이 수입할 때나 적게 수입할 때나 평균으로 표를 끊는 것이니 이렇게 모순되게 운영하는데 대한 책임은 건설과장이 규명할 것이며, 방금 낭독한 회의록대로 번영회에 넘겨줄 것을 동의

◇ 이 소 규 의원

- 이는 중대한 문제이니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토론 시간을 갖고 신중 토의할 것이며, 시직원을 두고 번영회에서 운영하면 감독권이 시에 있는가, 번영회에 있을 것인가?

토론 약 20분간 계속 되었음(생략)

◇ 김 길 환 의원

- 내 16일부터 말까지 15일간 시, 서, 번영회, 의회의 4자가 나가서 시험할 것이며, 수입면을 검토해서 결정하자 동의하다.

재청이 있어 가결되다.

◇ 의장 유 정 두

- 의원 측 대표 지명을 의장에게 일임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음
- 전원 찬성 가결로 김남진 의원을 지명

◇ 김 영 완 의원

- 목포시 중앙도매시장 허가취득 경위보고가 있었음(보고내용 생략)

◇ 서기 박 찬 대

- 전 만호동장 김성곤사건 처리 전말보고가 있었음
- (보고내용)

유용한 공금 전액 반환하였기로 해결되었음

◇ 정 응 표 의원

- 인분차 통행시간 제한 완화 교섭위원회 경과보고(생략)

◇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복주, 김길환 의원을 지명

◇ 의장 유 정 두

- 산회 선언하다.

(오후 3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5(1952)년 12월 13일

의장 유 정 두

의원 이 복 주

” 김 길 환

작성자 서기 천 세 봉

제11회 목포시의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5(1952)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 : 14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김남진, 이재홍, 임일남, 문택호, 김팔용, 정응표, 박찬규, 김채용, 오세일, 김영완, 김자홍 의원

2) 불참의원 : 4명

명남철, 김삼성, 진복춘, 김경현, 이문길, 김경희, 김길환 의원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하동연 시장, 박연태 산업과장, 오재봉 건설과장, 신현중 교육감, 김용준 교육청 서무과장, 조희대 서무계장

4. 의사일정:

1) 보고사항

(1) 제11회 임시회의 제1차 회의록

2) 부의안건

(1) 목포시 교육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10개 안건)

(2) 단기4285(1952)년도 제2기분 호별세 부가세율 인하부과의 건

5. 개의선언 :

의장 유 정 두

(오전11시)

◇서기 박 찬 대

- 전차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 없으면 수리하겠음

- 시장님이 출석했으니 미진된 동목포역 설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자

◇시장 하 동 현

- 최후 시간을 빌려 주정공장 문제와 아울러 말씀드리겠음.

◇이 재 흥 의원

- 요사이 신문에 목포교육계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잡부금을 받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장정을 환송하는데도 국민학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 그리고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도록 교육청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등 시민의 여론이 비등되어 있으니 먼저 교육감과 질의응답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어 표결결과 가결되다.

◇교육감 신 현 중

-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은 가슴아픈 일이다.

-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인원의 증가로 인건비 증가와 청사 문제에 부득이 한 점이 있다.

◇이 재 흥 의원

- 잡부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동을 구타하고 또는 수업 도중에 집으로 돌려 보낸다는 보도 그리고 오늘 장정을 환송하는데 단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과 정신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간혹 신부님과 자동차로 같이 다닐 때 아동들이 미국놈, 할로 할로 하고 또는 돌을 던져 얼굴에 상처까지 내는데 이런 것을 목격할 때면 기진맥진 아니할 수가 없다.

만일 미군인 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장 자기들 국내에 여론화 시킬 것이다

◇교육감 신 현 중

- 1. 잡부금이라 해서 국민학교 사친회비에 대하여 말썽이 있는데 회비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했으며, 또한 회비를 납부치 않는 아동에 대해서 수업도중 집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수차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 잡부금에 있어서는 군관계기관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학교에 가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달 잡부금은 11종에 달하였으나 그중 교육청을 통한 것은 동기과제장대금 1건밖에 없다. 군관계에서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단일화로 환기시킬 것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

- 2. 장정 환송에 대한 단체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은 연락 관계의 불충분으로 등정한 후에 알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행하겠다.

- 3. 정신교육 및 교외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방학기를 통하여 새로운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김 남 진 의원

- 이웃집 아동이 학교에 납부할 5만원 정도의 금전이 없어서 등교치 못한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 무조건 막대한 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니 그 내용을 말씀해 주기 바람

◇교육감 신 현 중

-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은 학교별로 다르다.
- 대개 6학년 아동에게는 사친회비로 8,000원 ,용지대 3,000원 정도 군위문금 약4,000원, 겨울 과제장 정도밖에 없고 5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니 곧 조사해 보겠다.

◇이 소 규 의원

- 실지 내지못한 아동을 등교 못하도록 한다면 교육적으로 지장이 있으니 학교측에서 실지 가정 방문을 하여 못 낼 형편이면 결손 처분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홍익인간에 입각한 교육을 해주기 바람.

◇김 영 완 의원

- 목포시내에 미취학 아동이 얼마나 되는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가?

◇교육감 신 현 중

- 미취학 아동이 약6,000명 추산되며, 성인교육 해당자도 현재 조사중에 있어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한 경비 문제는 의회에 보고 하겠다.

◇김 남 진 의원

- 의무교육 실시에 가장 중대한 공민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출 내용을 보면 성인 교육비가 없는데 말뿐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감 신 현 중

- 성인 교육비는 연 매호당 2,000원씩 징수키로 되어 있으며, 연차계획을 세워 실시키 위하여 조사중에 있어 명년초에는 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의장 유 정 두

- 질의응답은 이만 줄이고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음

◇이 재 흥 의원

- 회의 순서로 보아 결산서를 심의한 다음 예산 추가 개정의 건을 심의하자 동의하다.

- 재청이 이었다.

◇김 영 완 의원

- 일시 차입의 건도 예산 추가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에 하자

◇의장 유 정 두

- 예산 추가재정의 건은 결산서 심의 후에 하겠음

6. 토의 안건:

◎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제정의 건

◇의장 유 정 두

-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람
- 토론 및 질의응답 약 20분간 계속

◇의장 유 정 두

- 이의 없으면 제2독회에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가 9명, 기 3명, 제2독회 회부

◇정 응 표 의원

- 제2독회 및 제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전원 가결

◎ 목포시 호별세 부가금 조례제정의 건

◇의장 유 정 두

- 대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람

◇김 남 진 의원

- 현재 부과지수 1개에 대하여 80원이란 액은 목포시 실정에 비추어 고율인 바 이는 지방세법에 의한 것인가?

◇김 영 완 의원

- 1개당 80원을 부과하여 목표액을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자

◇시장 하 동 현

- 이 호별세 부과지수 1개당 80원은 최고율인 바 금년도에는 별도율에 기준하여 20원으로 되어 있으며, 80원을 부과하여도 징수에 100%를 기할 자신이 없다.

◇김 남 진 의원

- 부칙에 시행일자가 8월 1일로 되어 잇는 것은 여하한 일인가?

◇교육감 신 현 중

- 준칙으로서 내무부에서 8월로 정한 것이다.

◇의장 유 정 두

- 제2독회로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중 가 9명, 기 3명, 회부

◇의장 유 정 두

- 축조 심의하겠음 (축조심의 약 10분간)
- 본 조례안의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중 가 10명, 기 2명, 원안가결

◎ 목포시 특별부과금 조례제정 건

◇서기 박 찬 대

- 조례안 낭독

◇의장 유 정 두

- 대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주기 바람
(토론과 질의응답 약 20분간 계속)

- 제2독회에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전원 가결로 제2독회로 회부
(축조심의 약 15분간 계속)

◇의장 유 정 두

- 본 조례안의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중 전원 가로 원안 가결

◎ 목포시 교육위원회 수입원과 지출원 조례제정의 건

◇의장 유 정 두

-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주기 바람
(토론과 질의응답 약 10분간 계속)

- 이의 없으면 제2독회에 회부하겠음
(축조심의 약 10분간 계속)

- 본 조례안의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중 가 10명, 기 2명, 원안 가결

◎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보증조례 제정의 건

◇의장 유 정 두

- 대체토론과 질의 응답을 해주기 바람
(토론과 질의응답 약 10분 계속)

- 제2독회를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이 재 흥 의원

-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의장 유 정 두

- 본 조례안의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3명 중 가 10명, 기 2명, 원안가결

◎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 개정의건

◇의장 유 정 두

-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람
(토론과 질의응답 약 10분간 계속)

◇정 응 표 의원

-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 (재청 가결)

◇의장 유 정 두

- 본 조례안의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석의원 12명 중 가 11명, 기 1명, 원안 가결

◎ 단기4284(1951)년도 목포시 학교비 특별경제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은 원안대로 수리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재석 의원 12명 전원 가로 원안가결

◎ 목포시의회 정조규정의 건

◇이 재 흥 의원

- 제2조 제2항, 본인 자녀 출산시를 본인 자녀, 손 출산시로 수정 할 것과 이소규 의원께서는 11월 중 손자를 보았는데 본 건도 소급해서 지급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의장 유 정 두

- 본인 자녀, 손 출산시만 한하여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의원 당선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자

- 전원 찬성으로 가결

- 휴회 선언하다. (오후 1시 20분)

- 속회 선언하다. (오후 2시 30분)

◇정 응 표 의원

- 동목포역에 관하여는 행정부도 옮겨달라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알고 싶다.

◇시장 하 동 현

- 이 문제는 기공식 보다도 금전문제와 동원 문제가 선결 문제인데 주동체가 변영회인지 시인지 알 수가 없다.

◇의장 유 정 두

- 동 목포역 설치추진 위원회는 일단 해체하고 시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을 지우는 것이 좋겠다.

◇임 일 남 의원

- 동절을 앞둔 세민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아사지경에 처해 있는데 잡부금 기타 상환미 등의 미납으로 인하여 세민 배급을 중지하고 있는 일부 동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시장님이 지시했는지 알고 싶다.

◇시장 하 동 현

- 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 응 표 의원

- 거반 의회에서 시장님의 말씀이 자난달 말경에 청내 인사이동을 단행하겠다고 하여 전 청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각기 맡은 직무에 무성의한 점이 보이니 단행하려면 속히 하면 좋겠다.

◇시장 하 동 현

- 청내 인사교류를 단행 못한 것은 국채소화 및 세금징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지연된 것이며, 이달 말경에 단행하겠다.

◇정 응 표 의원

- 국채관계나 제반 세금관계 시무를 맡아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들이 민선 동장이 된다하여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기 바람

◇시장 하 동 현

- 4, 5일 전 도에서 통첩이 왔는데 선거는 당분간 보류하고 종전대로 임명체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전반 동장회의시 지시하였음

◇임 일 남 의원

- 국채소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또한 미소화자를 억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시정함이 여하한가?

◇시장 하 동 현

- 전라남도 21군 4시중에서 목포가 제1 말등을 점하고 있으며, 3할 2분이 라는 액을 소화하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서직원이 총 출동하여 8할 8분까지 올라 갔다는 말이 있음

◎ 단기4285(1952)년도 제2기분 호별세 부과금 세율 결정의 건

◇이 재 흥 의원

- 본 건은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전원 가결로 원안가결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전원 가결로 원안가결

◎ 단기4285(1952)년도 호별세 부과금 및 특별부과금 세율결정의 건

◇박 찬 규 의원

- 본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자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임 일 남 의원

- 작년도의 징세율을 본다 하더라도 80.6%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시민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5원에서 20원으로 세율을 인하할 것을 개의회하다.

◇이 복 주 의원

-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나 행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금전문제이니 주로 상공인층과 유지층을 짜내면 25원으로 완충을 것으로 생각되며 25원으로 통과시켜도 부과 개수가 고정되어 있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재강조

◇이 재 흥 의원

- 애매한 점이 많이 있으나 초창기이고 또한 90% 징수율 밖에 안된다고 하니 원안 대로 통과할 것을 삼청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에 재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2명 중 가 11, 부 1, 원안대로 가결

- 오세일, 김영완 의원 퇴장 (오후 4시 5분)

- 규칙 성원 미달이니 유회할 것을 바랍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에 의원 지명

- 유회 선언하다. (오후 4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5(1952)년 12월 15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문 택 호

” : 김 영 완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1회 목포시의회 제3차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5(1952)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 14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김남진, 이재홍, 임일남, 김경현, 김팔용,
정응표, 김길환,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 : 7명

명남철, 김삼성, 진복태, 문택호, 이문길, 김경희, 김채용 의원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하동현 시장, 신현중 교육감, 산업과장, 총무과장, 도 지방세계장,
서부국민교장

4. 의사일정:

◆ 부의안건

(1)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 경정의 건

(2)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식량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 경정의 건

(3) 목포시 교육위원회 단기4285(1952)년도 일시 차입의 건

5.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30분)

6. 토의사항

◎ 단기4254(1951)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

◇이 재 홍 의원

- 본 건은 의회에 제출한 지 3개월이 되었고 기히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

의했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재청)

◇의장 유 정 두

- 본 건은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4명 전원 가결로 원안통과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식량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 개정의 건

◇이 복 주 의원

- 본 건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하니 위원장으로부터 경과를 듣고 싶다.

◇김 자 흥 의원

- 제10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하여 경과를 설명 (회의록 참조)

◇김 남 진 의원

- 집행부 측으로부터 금반 추가 개정케 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람

◇산업과장 박 연 태

- 별지 추가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이 있었음

- 의원측과 과장간에 질의응답이 약 20분간 계속되었음 (속기록 참조)

◇이 재 흥 의원

- 이 안건은 대체적으로 볼 때 과장은 2, 3할이 인상되었다 하나 10할 이상 인상되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 쓰기에 애쓰지 말고 절약해서 잘해 줄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본 건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4명 전원 가결로 원안 통과

◇정 응 표 의원

- 작일 단기4285(1952)년도 제2기분 호별세 부가세율 결정에 있어 100분지 100을 100분지 50으로 인하한데 대한 시장님의 말씀에 우리 의원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통과시켰는데 교육감 말에 의하면 시세는 연 100분지 100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2기는 100분지 5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의원은 시장의 기만적인 처사에 대하여 의분심을 가지고 있다.

- 오늘 교육감도 출석하였으니 이에 대한 말을 듣자

◇시장 하 동 현

-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마치 도지방과 지방세계 담당 직원이 출석하였으니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도지방세계장 민 설 기

- 서울부과에 있어서는 분기별 주의에 의하여 연 2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제2기에 있어서는도 100분지 100을 부과할 수 있음(지방세에 의거하여 설명)

◇정 응 표 의원

- 어제 교육감께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확실치 못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모독하는 말이요. 의회와 집행부를 분리 시킬려는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교육감께서는 안건을 빨리 통과시킬려는 수단에서 했는가 모르겠으나 그 언사는 정식으로 취소하여 줄것과 앞으로 의사당에 나와서 발언하게 되면 잘 연구하여 말씀하기 바람

◇교육감 신 현 중

- 의회에 파문을 던지게 해서 미안하다.
- 그러나 고의도 아니요, 또한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절대 불순

한 동기가 아니었다.

- 연구 부족인지 모르겠으나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내 견해를 말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 결과가 확실할 때까지 나의 답변을 취소하겠다.

◇김 남 진 의원

- 서부국민학교는 난로를 피우기 위하여 아동 1인당 5천씩을 가져오라고 하여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교육감께서 지시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부학교장님의 단독행위인지 알고 싶다.

◇서부교장

- 며칠전 그런말이 있기에 조사하였던바 담임선생이 자기 단독으로 한 사실이 있기에 즉시 중지시켰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감께서 어제 발언에 대하여 취소하겠다 하니 다시 말할 필요도 없으나 모든 것을 신중히 토의하기 위하여 5분가 휴회할 것을 동의(재청)

◇시장 하 동 현

- 교육감이 이에 대한 연구도 없고 자기가 답변할 직원도 아닌데 경솔한 답변으로 의원 제공에게 염려를 끼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의장 유 정 두

- 5분가 휴회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4명 중 가 9명, 기 4명, 동의안 성립

- 휴회 선언하다. (오후 1시 20분)

- 속회 선언하다. (오후 1시 30분)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일시차입의 건

◇이 복 주 의원

- 은행에서 차입할 자금이 있다하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재청)

◇의장 유 정 두

- 본 건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4명 중 전원가결 원안통과
- 회의록 서명에 정응표, 이재홍 의원을 지명

- 폐회 선언하다

(오후 1시 50분)

- 폐회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5(1952)년 12월 16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권 응 표

” : 이 재 홍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1회 목포시의회 제3차 회의 속기록

◇의장 유 정 두

- 지금으로부터 제11회 임시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의안건이 많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부둣가 문제, 도선장 관계, 동목포역 설치 목포일보 운영사항 기타 청과물시장과 호별세 부과 특별세입 등 중요한 안건을 진진히 토의해서 가결 통과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현하 악성 인플레이가 우리나라에도 일익 증가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지금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두고 있으며, 민생문제는 날로 심해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시를 위하여 토의하여 주셔서 행정부로 하여금 급시일내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박 찬 대

- 제9회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지금 낭독하는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 신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안 경 호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 목포시는 말하자면 남한에서도 큰 도시이며, 또한 복잡한 도시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저는 오직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 노력을 할 것이다.

- 모든 문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하여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심계원에서 약 10일간에 걸쳐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시장님은 오전에는 못 나오시고 오후에는 나오실터이니 문의하실 말이 있으시면 오후에 시장님께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현 부시장님은 약 20년간이나 근무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완과 역량이 풍부하시며, 또한 우리의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실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복 주 의원

- 판자집 철거문제에 있어서는 시건설과를 주동으로 제1차를 단행하였던 바 거기에는 시청, 경찰서, 시의회의 추진위원들이 합하여서 밤 9시까지 모여서 판자집 철거를 단행 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 당시 추진위원 5명은 전부 못 가고 내무분과위원 중 김자홍 의원과 본인이 가서 밤 3시부터 판자집 철거를 단행한 것이 결국에는 8개소 밖에 철거 못했고 그 다음날 또다시 모여서 강력히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천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실지 철거하려고 현장을 가본 바 그야말로 동명동 부근에는 전채민들이 그날 그날을 지내기 위하여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다른 곳에다가 안집을 두고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한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 각도로 곤란한 점이 많으니 도저히 우리 의회로서는 못할 것임에 경찰서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 재 흥 의원

- 보고사항 도중 질문을 하게되면 시간이 없으므로 보고사항 9개중 한가지를 보고하면 토론하여 하나하나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부딪가 판자집 철거문제에 과하여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결한대로 의원께서 실행을 단행하였으나 협조기관의 성의부족과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 경찰서장, 해사국장, 해군경비부 사령부와 기타 해군헌병대장 등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토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김 영 완 의원

- 그날 못가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일반이 가서 세금을 내라고 하여도 안내는 실정이여서 파출소 직원을 동원하는 현상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그대로 추진시킴과 동시에 경찰서에서 협조를하여 주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난번에 해군경비부 사령관을 만났더니 경비부에서는 부둣가에 지어 놓은 것은 용달사 뿐이라고 하면서 기타 노점을 철거하는데 해군 용달사가 말썽이 있다면 군작전상 필요하오나 먼저 철거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해사국장과 경찰서장, 시장, 해군 헌병대장이 나하고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소 규 의원

-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므로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번 회부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그러면 추진위원회로부터 경찰서장, 해사국장, 시장 등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토의하여 되느냐, 못되느냐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김 팔 용 의원

- 동목포역에 관하여서는 이문길 의원이 보고하여야 할 것인데 의원이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하는대로 보고하겠습니다.

- 동목포역에 대하여는 3차에 걸쳐서 현장을 시찰하고 또한 이로면장과 유지를 만나서 타협한 결과 완전한 타협을 하고 동원 문제에 관하여서는 시의회에 정식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면 전적으로 동원하여 주기로 확답을 하였습니다.

- 인원은 약 천명 가량을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치돌 220개를 교섭키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얻을까 하고 교섭하였으나 무상으로는 안되고 최저 가격으로서 1

개에 8백정도로 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토지 관계자들에게 말씀 하였던 바 이 지방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계획에 의한 공사로 추진한다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반대할 수 없으므로 토지는 주되 유상으로 하여달라고 하기에 유상 으으로써 하기로 하고 경작자들에게서 확답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요즈음 듣는 바에 의하면 동목포역 설치 장소로서 이로면은 적지가 아니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고 또한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앞으로는 시자체로 옮겨주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사장께서 행정부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동목포역에 관한 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방금 의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만 공사비 현금 3천만이상과 인원동원만 하여서 행정부로 일임하여 준다면 우리 의회의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 규 의원

- 행정부로 옮겨서 조속한 시일내로 실시하도록 할 것은 물론인데 요즈음에 군산에서 주조공장이 목포로 오게되어 수도 보조금으로 2천만을 낸다 하기에 우리들은 5천만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 지배인 대리들이 출장중이므로 우리로서는 무어라고 확당시킬 수 없었기에 지배인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은 널 줄로 생각되오니 여하튼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그러면 동목포역에 관하여는 오후에 시장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합시다.

◇정 응 표 의원

- 행정부로 돌려달라는 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 무엇을 돌려 달라는 말씀이오.

◇김 삼 성 의원

- 요즈음 들리는 소리에 이로면을 목포시내로 편입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 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의원과 이로면장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토의를 할 것이며, 또한 이로면 의회도 오늘 소집하여 이 안전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 또 한편 드령본 바 시장님에 의하여 문제없이 편입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오후에 시장님이 나오시면 상세한 것을 토의하기로 합니다.

◇이 복 주 의원

- 우리 목포를 암흑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만들고 있는 목포일보사의 휴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을 설치하여 발간토록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 한편 들어보면 금전의 타개로 인한 휴간이었다가 요즈음은 발간을 하고 있는 모양이므로 오늘로 조사위원회를 해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13만 시민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 혹은 영업적이나 일부 주권양도 등의 복잡성을 일시 초래하였으니 속간하게 되므로 우리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로써 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해산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으로써 해산할 것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용당 도선장 관계로 저번에 명남철 의원과 본 의원이 실상을 조사 파악키 위하여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실지 조사한 결과 행정당 국의 모순성을 지적 한다치면 한이 없습니다.
- 그 이유는 현재 시자체가 그러한 결과를 빚어내도록 일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 그것은 선표를 사지 않고 승선하는 객이 많고 또한 화물에 있어도 물표를 끊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실정이며, 그러한 객과 화물은 운항 도중에 선원들이 표를 주지않고 돈만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 이리하여 화물을 가진 사람을 배에서 못내리게 하며 또는 돈을 내라고 하여서 대단히 복잡성을 초래함은 물론이거니와 수입면에 있어서도 확실한 숫자를 모르는 현실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선원에게 이 사실을 질문했습니다.

- 선표대를 선중에서 받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또한 매일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냐고 물었더니 선중에서 화물대와 선표대는 오후에 일괄 계산하여 시청에 납부한다고 하며, 매일당의 수입은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생각건대 180만원이 될지 9만원이 될지 누가 알 것이며, 물론 공무원의 대우로는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서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사용한 예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모순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러한 계획은 건설과장에게 물어 보아서 번영회에다가 맡기든지 하면 경찰서하고 타협하여 운영하든지 하기로 하고 시번영회에다가 넘겨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이복주 의원으로부터 번영회에 일임하여 그 조건으로서는 시하고 경찰서하고 얼마씩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번영회에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대표만 번영회 직원으로 한다든가 하여 대표 관계만 번영회로 준다든가 하는 방법등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 소 규 의원

- 도 선장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시에서 번영회로 넘겨 대표만을 번영회에서 한다 하면 그 지권의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곤란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번영회란 것은 시운영의 보좌기관이므로 감독은 어디까지나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주 의원

- 표 3매를 인쇄하여 대표한다면 3인이 합동하여 위조할 수는 없으므로 선표를 3매로 인쇄하여 3자가 취급토록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 흥 의원

- 운영 도중 배가 상한다던가 하여 수선의 책임관계도 있고 또한 지금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수입이 얼마가 될 지도 모르는 현실이니 모든 것을 시일을 두고 연구하기 위하여 앞으로 한달 동안 선표는 시직원이 대표하던지 하여 정확한 수입면을 보아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절대적으로 밀선을 취체하도록 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말합니다.

◇명 남 철 의원

- 도선장에 관하여서는 지금 용당 잔교 부근에 밀선의 모타가 3척이나 있어 매일같이 왕복하므로 경찰서에서 밀선만 철저히 감독한다면 1일 5만원이나 10만원은 필연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영 완 의원

- 시재정 확립상 권력을 가하여 앞으로 1개월간을 운영하여 월말의 수입을 보아서 결정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소 규 의원

- 시 세입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토의하여 주심과 동시에 선박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 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 그리고 번영회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직원의 문제이온데 시세입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 1할정도를 떼어 가지고 번영회 직원들을 대우한다든가 또는 현 직원들을 그대로 두고 번영회에서 서기 정도로 1명을 사용한다든가 하여 여하튼 시세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 남 철 의원

- 현재 운영 방법을 본다면 적자가 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러면 내일부터 앞으로 30일간의 실제 수입을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한을 단축하여 15일 정도로 하여서 시와 경찰서와 우리 의회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일부터 30일까 하자는 의원이 있음)

- 그러면 선포의 인쇄관계가 있고하니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시, 경찰서, 번영회, 의원 각각 1명씩 월말까지 실지 수입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 우리 의원 중에는 김남진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 영 완 의원

- 목포 도매시장 허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계 서류를 28일까지 작성하여 29일 상공계장을 만나러 갔더니 또한 서류가 불비되었다 하여 다시 고쳐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묻는 말이 목포시의 직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행이냐고 하기에 목포시의 직영이라고 하면서 왜 묻느냐고 하였습니다.

- 대행이라면 자금의 1할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로 절대로 시직영이라는 것을 주장해 가급적 허가장을 가지고 올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든 경제면에 곤란이 막심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에 오는 항공표까지 팔아 금액을 사용하고 철도로 오면서 차표를 사는데 역원의 불미한 점도 역장에게 말씀하고 왔다는 이유와 오게 되는 동시에 허가장을 가지고 올려고 여러 각도 연구하여 이기봉의원을 만나서

타협한 결과에 도장까지 맡겨 놓았으나 가져오지는 못하였고 일부로 허가된 것만은 사실이므로 내일이라도 누구든지 상부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목포시의회에서도 의장이나 기타 의원 등이 1개월에 한번씩은 부산에 가서 모든 사무면에 타협함도 좋다고 생각하며, 중앙에서도 말하기를 여수 등지에 서는 매일 살다시피 하는데 목포에는 한번도 오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내일이라도 가서 허가장을 가져오도록 하여 주십시오.

◇서기 박 찬 대

- 전 만호동장 공금유용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 보고내용은 별지와 여함

◇정 응 표 의원

- 인분시간 제한에 관하여는 시간제한이 없도록 관계당국에 교섭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3시부터 속회하겠습니다.

- 산회 선언하다. (오후 2시 10분)

- (오후 3시부터 속회하기로 하였으나 의원들의 청에 의하여 내일 개최할 것을 선언 하였음)

◇의장 유 정 두

-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주로 오늘 회의에서 토의 사항은 교육세에 관한 안건이므로 신중히 토의 하여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회 선언하다. (12월 15일 오전 11시)

◇서기 박 찬 대

- 보고사항 낭독하였음

◇의장 유 정 두

- 지금 낭독하는 회의록 중에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통과하였습니다.
- 그러면 동목포역 관계와 교육위원회의 일시차입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여 주시오.

◇이 재 흥 의원

- 교육위원회 모든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먼저 교육장에게 질문할 말씀이 있는데 그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우리 목포에서 수백명의 입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서 환송장에 나오지 않음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라 이니할 수 없습니다.
- 일제시대에는 군입대하면 모든 학생들이 입장기를 들고 나와서 가는 장정의 기분으로 도와주었는데 소위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러한 일은 교육감의 지시가 없었는가, 어떠한가, 의견을 좀 듣기로 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 토의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가라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 재적의원 12명중 가 7명, 부 5명으로써 가결 되었으므로 의견을 듣기로 합시다.

◇이 재 흥 의원

- 요사이 목포시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차라리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학무과를 두고 할때는 각출이 적었던 것이 요즈음에는 더 많다고 하여 시민의 말썽꺼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육감 신 현 중

-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 자치제도가 생긴후 모든 예산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시민들이 하여야 하기로 그런 사실에 오해가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또한 중앙초등학교 신축비 및 청사 수리비 등을 합하여 내년 4월 초까지의 예산이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각출방법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재 흥 의원

- 요즈음에 신부님과 같이 산정리 근방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찢차를 타고 가면 학생들이 돌 등을 던지면서 가진 욕을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을 신부들이 본국으로 보고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 수준이 좋지 않게 각인될 것이며, 또한 아동을 담당하고 잇는 교육계의 입장도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심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육감 신 현 중

- 잘 알겠습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김 남 진 의원

-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이런 사실을 보았는데 모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기에 왜 안가느냐고 물은즉,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돈이 5만원인데 안가지고 가면 수업을 못받게 하고 다시 돌려보낸 현실인 바 돈이 없어서 못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5만원이란 돈은 1개월분인가, 또는 1년분인가, 또는 어떠한 돈인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 신 현 중

- 6학년생이라면 8천원입니다.
- 그것도 학교에 따라서는 3천원인 것도 있지요. 또한 동기 방학책대라 하여 4천원 그것 뿐일 것입니다.
- 따라서 요즈음에는 각 기관 또는 위문대금이니 무어니 하여 합하면 11종

가량의 종류가 되는데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는 제가 아는 범위라고는 이것 뿐입니다.

- 혹은 이러한 점이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께서 학교 당국으로 연락하여서 내용을 알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 응 표 의원

- 권력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학교 등에 돈을 요청할 때는 교육 위원회 통과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신 현 중

- 대부분 통과하는데 경찰서나 경비부 등은 통과하나 그 밖에는 대부분이 직접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므로 교위위원회에 통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도에서나 상부의 지시에는 물론 곤란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라는 될 수 있으면 홍익인간 정신교육으로 하시되 앞으로는 수업 도중에 납부금 관계로 하여금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신 현 중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실은 전남종합대학도 아동 1인당 1천원씩인데 이것을 목포는 2, 3할도 못되었다고 하며, 문교당국에서는 입채라도 하라고 하였으나 이것 역시 다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 영 완 의원

- 목포시내에 미취학 아동이 얼마나 되며, 이런 아동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신 현 중

- 12월 말까지 하여 미취학자를 시장이 조사하게 되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는 6천명의 아동밖에 수용할 수 없고, 현재의 3배의 교실을 가지고라도 미취학자까지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만 17세의 미취학자에 대하여서는 공민학교 속성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민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오.

◇교육감 신 현 중

- 만 17세의 미취학자에 대하여는 공민 속성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일괄 수용할 교실이 문제임으로 연차 계획에 의하여 실행코자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질의응답이 다 끝났으니 일시 차입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의장의 모순을 지적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 먼저 예산면을 심의하여 과불이 여차한 바 일시 차입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을 토론함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되온 바 먼저 예산면을 심리하도록 합니다.

- 그럼 제2독회로 들어갈 것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적의원 11표로 가결 되었으므로 제2독회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 남 진 의원

- 현재 1개당 80원이란 액은 목포시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너무나 고율인 바 시장님에게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김 영 완 의원

- 1개당 80원씩을 부담하여 목표액을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이 호별세율 1개당 80원은 최고율이므로 금년도에는 별도율에 기준 부담할 계획이며, 80원을 부담하여도 징수 100%를 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소 규 의원

- 제3조에 대하여 받기는 시에서 하고 지출관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었는데 책임의 소재가 여하합니까?

◇김 남 진 의원

- 8월 10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교육감 신 현 중

- 이것은 준칙으로써 내무부에서 12월 중순에-----

◇의장 유 정 두

- 8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 옳을 것입니다.

- 그리고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기부로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2명 중 기권 3명으로서 가결 되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방금 시장님의 말씀 중 최고율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하합니까?

◇의장 유 정 두

- 최고율로 하여놓고 부담에는 축소할 것입니다.

- 그럼 본 조례의 통과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1개 80원이라 함은 지방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목포시에서는 100분지 15를 부담시켜 시에서 이것을 징수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육감 신 현 중

- 지방세만은 시결정세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있으나 교육세만은 그러지

못하기에 목포에서는 시민의 부담력을 참작하여 한 것이다.

◇이 재 흥 의원

-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 본인이 말하는 100분지 15라는 한계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오.

◇의장 유 정 두

- 읍면에 있어서는 교육세는 위촉세이기 때문에 15%라는 교부금을 주게 되는 것이며, 시교육청은 직접 시의 살림살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 흥 의원

- 결국 교육청에서는 시직원으로 하게 됨으로 그에 대한 교부금을 주어도 좋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유 정 두

- 세울을 본다면 시민의 부담력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하여서 결국은 교부금은 안 주더라도 시운영이나 교육청 운영에 도움이 될 줄로 생각 됩니다.

◇교육감 신 현 중

- 말하자면 징세금이 10%가 있고 또한 징수원의 수당금이므로 결국은 25%가 징수가 된 것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제2독회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중 가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교육청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목포시청 공무원인지 불연이면 교육청 공무원인지 알고자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행정상으로는 교육청의 공무원이나 급료는 우리 시민이 지불하게 되고 교육청 공무원의 임명은 도지사가 하게 됨으로 별정직인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재 흥 의원

- 제2독회를 약하고 제3독회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가 1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교육위원의 여비도 인상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유 정 두

- 그것은 안됩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여비를 인상하여 놓고 어떠한 욕을 먹었습니까?

- 별도 대우의 방침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부 결과 전원 통과함

◇이 재 흥 의원

- 작년도 부가금의 수입결과를 보면 동일한 고지서에서 수입하였을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차이가 심한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신 현 중

- 분납하기로 하여 일부는받고 일부는 못 받는 것이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차가 생긴 것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의원 경조 조례에 관하여 의원끼리 타협하였습니다.

- 김남진 의원으로부터 시청직원 이문철군이 결혼식을 거행하여었는데 다 소라도 축하를 표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나 의장의 거부 발언으로써 부결되었음.

- 오후 1시 5분에 오전 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회로 들어갔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동목포역에 관하여서는 행정부로 옮겨 달라고 하오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 그러나 동목포역 추진의 주동체는 어디까지나 시장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의원들도 끝까지 노력과 추진의 조속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동목포역 추진위원회는 일단 해체를 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위원과 협조하에 추진토록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을 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동절의 시민의 생활상태를 살펴 보건데 그야말로 곤란에 아사지경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일부 동회에서는 세궁민의 식량배급이 나왔으나, 잡부금 기타 상환미 등의 미납으로 인하여 배급을 중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은 시장님이 지시를 하였는가? 또한 어떠한 조치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지난번 의회 때 시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난달 월말까지 청내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써 관기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청

내 전원이 인사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의 말은 바 직책에 성의가 없어 보인데 이동을 단행하려면 하루빨리 단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시장 하 동 현

- 인사 교류에 관하여서는 당분간은 못하겠습니다.
- 이유는 국채나 세금 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이달 말경에는 단행할 계획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국채 관계나 지방세금 관계를 맞춰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들이 민선 동장으로 된다면 말은 바 직원에 성의가 없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시장 하 동 현

- 동회장을 민선할 수 있도록 한동안 서류를 만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도로부터의 공문에 의하면 당분간 실행을 못한다는 것이 확실히 와있기 때문에 각 동장에게 통첩을 내고 있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국채소화에 있어서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21군, 4시중에서 제일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 겨우 3할 2분이라는 액을 소화하였습니다. 광주는 5부가 되었답니다.

◇의장 유 정 두

- 앞으로도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청과물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비밀회의를 합시다.

◇이 재 흥 의원

- 세입세출의 차이가 심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세입에 있어서는 그러나 예산면을 본다면 세출은 억제시키고 세입을 증가시켜 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제1기분을 2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주 의원

- 단기4284(1951)년도의 호별세가 요즈음 들어보면 불과 80%, 교육세는 30%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하 동 현

- 제1기분 미수에 대하여는 독려반을 조직하여 수입에 독려 중입니다.
- 이러한 사실로 보더라도 5원을 증가하여 놓으면 징수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시장님이 바쁘시면 먼저 호별세를 통과합시다.

◇시장 하 동 현

-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교육감 신 현 중

- 결국에 교육세를 최고율로 부가하여도 운영란이 동시에는 국가의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작년도의 징수율을 본다 하더라도 80%, 60%하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25원을 20원으로 삭감할 것을 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1명 중 가 8명, 부 1명, 기권 1명으로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가결 하였습니다.

- 25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11명 중 10표로서 가결하였습니다.

- 산회 선언하다.

(오후 4시 10분)

◇산업과장 박 연 태

- 식량특별회계개정 예산에 관하여서는 단기4285(1952)년도의 예산에 있어서 운영에 곤란이 봉착하므로 여차 걱정을 보게 되었다고 요지의 원안 지참 설명이 있었음. (원안 지참키로 내용은 생략함)

◇이 재 흥 의원

- 추가경정액을 보면 30억이라는 돈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 연 태

- 이것은 국가의 양곡을 취급하기로 시로서는 아무런 수입도 없으며, 또한 그렇다고 하여서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 단지 정부에서 주는 양곡을 그대로 배급하여 줄 따름으로 아무런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재 흥 의원

- 가마니 1매당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시인지 모르나 그 대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까?

◇산업과장 박 연 태

- 이것은 회수하여 근량으로 등급을 떼어 2등 또는 등외에 취급하게 되므로 5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1년을 취급하는 양을 본다면 2천만석이 넘는데 요즈음 말을 들어보면 백가마니만 배급한다면 2가마니는 남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며, 어떠한 수입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박 연 태

- 이것은 그렇습니다.

- 종전에는 이러한 예가 있는 모양이오나 내가 오면서는 아직 이런 사실이 없고 도리어 도중에 흘러서 하여서 요즈음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금년 하절에 수침에 인한 양곡의 처리 방도는 어찌 하였습니까?

◇산업과장 박 연 태

- 도로 보고하여서 지시에 의하여 구제미로써 배급하였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금년도에 산정동 풍수해로 인하여 시청에 가마니를 사용하였다 하던데 이 대금은 어디서 지불할 것인가?

◇총무과장 황 도 익

- 가마니 2천매를 가져가 약 3백매 가량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남은 3백매를 2천원 정도로 매매하여 지불할까 합니다.

◇이 재 흥 의원

- 여기를 보면 직장용이라는 쌀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배급하며, 어떠한 방침에 의하여 배급합니까?

◇산업과장 박 연 태

- 배급미 310석에 대하여서는 도의 지시에 의하여 배급하므로 목포시에는 어찌할 수 없는 백미올시다.

◇정 응 표 의원

- 과거에는 해사 종사원들의 식량배급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1흡의 배급이 없는 현실이니 어찌된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박 연 태

- 과거에는 부두 노무자용으로써 도로부터 수배하여 오던 것이 지금은 그런 수배량이 없으므로 못 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여서 배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재 흥 의원

-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 전원 가결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감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말과 또한 빨리 통과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언사는 정식으로 취소하여 주십시오.

- 100분의 100을 부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부가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의사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잘 연구하여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 현 중

- 연구 부족으로 의회에 파문을 던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 그러나 나는 어떠한 고의도 아니요, 또한 통과를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 어느편이 연구 부족인지는 모르나 나도 지금도 의문이 살아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취소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이것은 지방자치조례를 읽어서 연구하여 본 바 교육위원회의 착각으로 생각합니다.

◇김 남 진 의원

- 유감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요즈음 시내 국민학교가 전부 난로를 피지 못하고 있는데 서부국민학교만은 난로를 피기 위하여 아동 1인당 1만5천원씩을 가져오라고 하여 아동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정식으로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일인가?

- 불연이면 단독적인 행사인가? 서부초등학교 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부국민학교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

- 요전에 그런 말이 있기에 일부 조사하여 보았더니 일부 담임선생이 자기의 단독인 행사로써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즉시 중지시킴과 동시에 대단한 주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 규 의원

- 앞으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대하여 돈하고 학교하고는 분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 응 표 의원

- 어제 교육감의 발언에 대하여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취소하였으니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신중히 토의하기 위하여 5분가 휴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대단히 미안합니다.

- 교육감으로서 할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답변을 하여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5분가 휴회할 것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3명 중 가 9명, 기권 4명으로써 가결되었습니다.

- 휴회 선언하다. (오후 1시)

- 속회 선언하다. (1시 30분)

◇이 복 주 의원

- 은행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빌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 전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폐회사) 연일에 걸쳐서 진진한 토의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세나 지방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살림살이를 잘하여 나가자는 것일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으로 행정을 하여 나가는 의결부와 행정부에서는 상호협조하에 일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행정부에서는 통과된 모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불을 절약하여 우리 목포시의 13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들은 충실한 공복자가 되어 이 국가, 이 향토를 수호하여 전국 어느 지방보다도 우수한 성적과 결실을 나타낼 것이며, 특히 교육감에게 부탁코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목포의 자랑인 중앙국민학교의 신축공사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 폐회 선언하다. (오후 1시 30분)